

# 큰 빛은 예교회 가정예배지

2024. 7. 10.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4장 16절

다 같이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뒤이어 일어난 또 하나의 커다란 범죄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중압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두려워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인의 범죄 후의 고백과 그가 거한 땅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고 슬퍼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 보면서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 첫째, 낫 땅의 거민

본문에서 '여호와와 앞'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은 창세기 33장 10절에 '얼굴'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즉 범죄하여 더럽혀진 인간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은 항상 불안해하며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상대적인 가치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거한 땅은 '낫', 즉 '방황', '흔들림'이란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방황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는 온갖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낫과 같은 베이지역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둘째, 에덴의 행복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의 삶은 낫 땅의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드럽다', '즐기다'에서 유래하여 '기쁨', '우아함' 등의 뜻을 지니는 '에덴'에는 어떠한 갈등이나 남을 미워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스며들어 있었던 에덴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이며 가장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허물도 보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그 곳이었습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또한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주어진 자연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비전을 이루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 마무리 기도

##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회복의 삶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비전을 이루고, 기쁨이 넘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기도 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